

“야구 계절 왔다” 1500여명 복직... 터너 151km 눈도장 ‘광’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SK와이브스와의 시범경기가 열린 12일, 평일임에도 많은 관람객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찾아 경기를 보고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
KIA, SK에 4-1 역전승
선발 터너, 5이닝 무실점 쾌투
양현종 2이닝 컨디션 점검
오늘 조일랜드 선발 시험대

KIA 타이거즈의 새 외국인 투수 제이콥 터너가 첫 한국 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터너는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 와이브스와의 시범경기 개막전 선발로 나서 5이닝을 소화했다. 72개의 공을 던진 그는 2피안타 2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한국에서의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팀은 상대의 실수 연발 속 4-1 역전승을 거뒀다.

터너의 특유의 힘 있는 피칭이 눈길을 끌었다. 31개의 직구를 던진 터너는 이날 최고 구속 151km를 찍었다. 결정구로 공을 들고 있는 투심 역시 151km를 찍었다.

힘으로 상대를 압박한 터너는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 등으로 타이밍도 뺏았다.

터너는 1회 첫 타자 노수광을 1루수 땅볼로 처리한 뒤 3루수 최원준의 좋은 수비로 투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한동민에게 중전안타는 내줬지만 로맥의 방망이를 헛뜯게 하면서 첫 삼진을 만들었다.

2회를 스탠딩 삼진으로 연 터너는 연속 땅볼로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터너는 3회 선두타자 강승호에게 헛스윙 삼진을 유도한 뒤 최하에게 내야 안타를 내줬다. 빗맞은 타구가 투수 글러브를 맞고 2루수로 향하면서 만들어진 행운의 내야안타였다. 주자를 내보낸 터너는 이어진 노수광과의 승부에서 2루수 앞으로 향하는 땅볼로 병살타를 만들어냈다.

4회 터너가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다. 터너가 원아웃을 잡은 뒤 투스트라이크에서 연달아 볼 4개를 던지면서 첫 볼넷을 기록했다. 로맥은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했지만 다시 이재원에게 볼넷을 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격수 앞으로 향하는 땅볼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위기를 넘긴 터너는 5회를 삼자범퇴로 처리하면서 안방에서의 첫 등판을 끝냈다.



KIA 제이콥 터너가 1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와의 시범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공을 던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터너는 “투수구를 늘려가는 것도 잘 됐고, 공격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좋았다. (챔피언스필드) 마운드도 마음에 들었다”고 첫 등판 소감을 밝혔다.

맞춤형 ‘땅볼 유도’도 성공적이었다. 터너는 이날 아웃카운트 15개 중 10개를 땅볼 타구로 처리했다.

터너는 “나는 땅볼을 유도하려고 한다. KBO 리그가 홈런이 많기 때문에 땅볼을 유도하다 보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며 “투심이 좋아지고 있다. 투심을 많이 던지기도 하지만 다른 3-4개의 변화구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스프링캠프 마지막 연습경기에서도 4회 위기를 겪었던 터너는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터너는 “오랜만에 던지다 보니까 더 많은 이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오늘은 던지고 내려와서 팔 상태도 좋아서 만족스럽다”며 “지금은 건강하게 던지면서 투구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터너에 이어 6회부터 ‘에이스’ 양현종도 출격해 컨디션을 점검했다.

양현종은 로맥에게 솔로포를 허용했지만 2이닝 3피안타(1피홈런) 2탈삼진 1실점으로 괜찮은 피칭을 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5km를 찍었다.

이어 나온 고영창과 문경찬도 깔끔하게 이닝을 책임지면서 마운드 움직임은 좋았다. 타석에서는 4개의 안타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의 실수로 4점을 만들었다.

0-1로 뒤진 7회말 선두타자 최형우가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출루했다.

대주자로 나온 이창진이 폭투로 3루로 향한 뒤 나지원의 볼넷이 이어졌다. 이명기의 삼진으로 원아웃. 김주형의 타구가 3루수 앞으로 향했고, 홈 악송수가 나오면서 3루 주자 이창진이 홈에 들어왔다. 다시 폭투에 이어 유격수의 송구 실책 등 한 이닝에만 3개의 폭투와 3개의 실책이 나오면서 KIA는 4-1로 승부를 뒤집었다.

KIA는 13일 조일랜드를 선발로 해 시범경기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SK에서는 산체스가 선발로 나온다.

한편 이날 챔피언스필드에는 1517명의 관중이 찾아 들어온 야구의 계절을 즐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함평 경기 이원화로 시즌 옥석 가리기

KIA, 챌린저스필드서 KT와 연습경기... 오늘 홍건희 선발 테스트

KIA 타이거즈가 ‘경기 이원화’로 2019시즌의 답을 찾는다.

KIA는 1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SK 와이브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렀다.

앞서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연습경기가 잇단 비로 차질을 빚었던 만큼 이번 시범경기는 KIA에게 중요한 평가전이다.

캠프에서 미진했던 옥석 가리기를 끝내고 청사전을 완성해야 하는 시범경기의 첫 경기였지만 예상과 달리 많은 선수가 경기에 투입되지 않았다.

시범경기는 정규리그 경기와 달리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이 없다. 외국인 선수도 한 경기에 3명 모두 뛠 수 있다.

그러나 이날 KIA는 라인업에 24명의 선수만

이름을 적어두었다. 투수도 선발 터너 포함해 6명만 대기를 했다. 실제 마운드에는 4명의 투수만 올랐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전력 점검을 위한 방안이다.

KIA는 이날 챔피언스필드뿐만 아니라 챌린저스필드에서도 경기를 했다. 챌린저스 필드에서는 KT 위즈와의 연습경기가 진행됐다.

짧은 이닝이 아닌 실전처럼 이닝을 소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경기 이원화’로 동시에 전력 점검을 한 것이다.

선발 경쟁도 이뤄졌다.

KIA는 시범경기에서 제이콥 터너에 이어 13일 조일랜드를 마운드에 투입한다. 14일에는 임기영, 15일에는 김기훈이 선발로 출격할 예정이다. 현재 KIA가 구상하고 있는 선발진

이 순서대로 마운드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4-5선발은 유동적이다. 앞선 캠프 연습경기에서 임기영과 김기훈이 확실한 점수를 따지 못했던 만큼 함평에서도 선발 점검이 이뤄진다.

12일 함평 KT전에서는 황인준이 선발로 나섰다. 56개의 공을 던진 황인준은 4이닝 4피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13일에는 역시 KT를 상대로 홍건희가 선발로 나와 테스트를 받는다.

14-15일 훈련 일정을 소화하는 2군 선수단은 16-17일에는 삼성 라이온즈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연습경기를 갖는다.

그리고 19-20일 경산으로 가 삼성과 원정경기를 치르고, 21-22일에는 상동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만나 마지막 점검을 할 계획이다. 23-24일에는 동국대와 홈경기가 예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리그 올 목표 관중 878만명

KIA 90만 목표... 23일 LG와 홈에서 개막전

KBO리그가 2019시즌 878만 관중에 도전한다.

KBO가 12일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정규시즌 목표 관중을 발표했다.

KBO 리그 소속 10개 구단이 설정한 올 시즌 목표 관중은 878만488명(경기당 평균 1만2195명)으로, 역대 정규시즌 최고였던 2017년 840만688명(경기당 평균 1만1668명)보다 4.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최다 관중(111만2066명) 팀인 두산

베어스는 115만명을 목표로 11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를 노린다.

LG 트윈스는 올 시즌 10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20만 관중을 목표로 삼았다.

새 구장인 창원NC파크에서 팬들을 맞이하는 NC 다이노스는 72만명의 관중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가장 높은 관중 증가율(62.6%)로 구단 최다 관중인 2016년의 54만9125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 시즌 11년 만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며

구단 최다 관중(73만4110명) 기록을 새로 쓴 한화 이글스 역시 구단 신기록인 73만5000명에 도전한다.

‘디펜딩 챔피언’ SK 와이브스는 2년 연속 100만 관중 동업에 나선다. 롯데 자이언츠도 2017년 이후 2년 만에 홈 관중을 100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시즌 86만1729명을 기록했던 KIA 타이거즈는 4.4% 증가한 90만 관중을 목표로 잡았다. 이어 삼성 라이온즈 78만명, KT 위즈 75만명, 기움 히어로즈 54만5488명을 목표로 시즌을 맞이한다.

한편 2019 KBO 정규시즌은 오늘 23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KIA는 안방에서 LG를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